

전남대 의대 동문회, 대학발전기금 전달



전남대 의과대학 제43회 동문회(회장 김도현·선현주)가 최근 전남대 대학본부 5층 총장실에서 지병문 총장에게 대학발전기금 2040만 원을 전달했다. <전남대 제공>

동신대 네가와트사업단 장학금 기부 협약



동신대학교 에너지 네가와트 시스템 인력양성사업단은 최근 대학에서 군장에너지, 누리텔레콤, 리눅스아이티, 한국에너지산업, 헝시바에프엔비 등과 장학금 기부 협약을 맺었다. <동신대 제공>

광주광산경찰, 중·고교 방문 진로교육



광주광산경찰(서장 임광문)은 최근 명진고등학교 등 광산구 소재 20개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경찰 입문과정과 경찰의 역할, 경찰장구류 체험 등 진로교육을 실시했다. <광주광산경찰 제공>

광주아동보호기관, 아동지킴이단 위촉식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재춘·맨 오른쪽)에서는 지난 17일 상무1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장복순)를 대상으로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위촉식을 열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

“암기 강요보다 생각 키워주는 교육 돼야죠”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광주 강연

독서·토론 문화 늘리고
타인 존중·겸손하도록
부모·학교가 앞장서야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는 해가 저 어두워진 하늘을 보고 엄마에게 묻는다. 왜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녹록지 않은 질문이지만 엄마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낮에는 태양이 있어서 밝고 밤에는 태양이 저서 어두워진다고 말이다. 태양은 왜 움직이는지, 그 옆을 도는 지구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아이의 질문은 20여 분 넘게 계속됐다. 엄마는 과학자가 아니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아이의 궁금증을 채워주었다. 엄마가 잘 모르는 내용은 나중에 함께 찾아보자고 말했다.”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의 저자 홍세화(67)씨는 프랑스에서 만난 엄마와 아이의 모습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기억했다. 집요할 정도로 이어지는 질문에 화내지 않고 끝까지 답을 해줄 수 있는 학부모가 과연 한국에 얼마나 될 것인지 물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빛고를 아이쿱생협이 주최한 시민강좌가 지난 17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아이쿱생협 빛고를 센터에서 개최

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그는 20여 년간 프랑스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았던 경험을 통해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다. 프랑스 놀이터에서 겪은 일을 언급하며 같은 상황에서 한국 학부모들은 어떤 답을 했는지 물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돼, ‘쓸데없는 거 궁금해하지 말고 공부해’ 해. 그는 암기를 강요하는 학교와 호기심을 허락하지 않는 부모가 학생들의 미래를 어렵게 하는 건 아닌지 자문해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 학부모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자녀의 행복을 높이는 것보다 성적을 높이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것을 당부했다.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이 스스로 책을 읽으며 지적 호기심을 채워야 하는 데 한국의 역사교육은 사건 연도를 암기해서 답을 찾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흥미를 갖기 어렵다는 것. 결국 잘못된 교육이 학생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닌 암기하는 기계’로 전락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을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이 가진 생각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토론하는 문화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9년에 출간한 저서

“생각의 좌표”에서 ‘내 생각은 어떻게 내 것이 되었나?’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간단해보이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기에 쉽게 답할 수 없는, 그러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청중에게 다시 한번 던졌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생각이 곧 그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대화와 독서, 경험과 성찰로 생각을 만들 때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는 자신을 위해 태어난 수단입니다. 여기서 쏟아내는 정보는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주입된 것일 뿐입니다. 강요된 것이 아닌 내 생각을 갖고, 타인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는 사유하는 인간을 위해 부모와 학교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행동이 모두 옳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 화합하는 길은 나와 타인이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



17일 광주에서 열린 시민강좌에 강사로 나선 ‘빠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씨는 인간은 누구나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 메르스 격리 가정 생활비 지원

접수 중...최대 100만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5일부터 메르스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 아동 가정의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전라남도 내 메르스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 중 아동과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한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메르스 관

리 대상자 수는 17일 오후 현재 확진 환자 1명을 포함해 병원격리, 자택격리 등의 사유로 관리되고 있는 전남지역 관리대상자 수는 총 558명이다. 이 중 메르스 의심 증세 등으로 자가 격리 중인 학생 및 교직원 이 총 135명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도내 자택격리된 가정 지원금 총 954만 원으로, 14가구 29명에 지급됐다. 긴급생계비용은

한 가구당 평균 68만 원에 불과하다. 4인 가구 기준 월 110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인 월 166만 8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는 전남도 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아동 및 자택격리 대상 아동 중 저소득가정일 경우 긴급생활안정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이메일(managemy-self@childfund.or.kr)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061-274-0041)에서 가능하다.

/양세열기자 hot@

김주하 전 앵커, MBN 합류



김주하(42) 전 MBC 앵커가 종합편성채널 MBN으로 간다. MBN은 18일 “김주하 앵커가 MBN에 합류하게 됐다”며 “7월1일 첫 출근하며 내부 논의를 거쳐 뉴스 또는 보도프로그램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MBN은 지난해부터 김 전 앵커에게 영입 제안을 했고, 최근 다시 접촉해 영입을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 김 앵커는 지난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는 등 간판 아나운서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장애인고용공단 공익신고자 보호제 캠페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원장 박관식)은 18일 함평 동향평IC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캠페인을 펼쳤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제공>

서광주농협, 로컬푸드 사업설명회·농업인 교육



서광주농협(조합장 문병우·사진)은 지난 17일 농협광주본부 6층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서대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 출하를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시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사업설명회 및 농업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서광주농협 조합원 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농협의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해 로컬푸드에 대한 큰 관심과 기대를 표명했다.

문병우 조합장은 출하약정을 희망

하는 농업인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출하로 광주 시민이 우리지역 농산물을 더욱 더 애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서광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내달 1일 광주시청사 1층 로비에 개장할 예정이며 연중 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진열·판매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성낙술·지애순씨 장남 건묵군 이덕연(금호고속 대표)·안순아씨 장녀 혜선양=21일(일) 오후 1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3컨벤션 센터 2층 그랜드볼룸 02-789-5700.

▲이의범·안성원씨 차남 민상군 박미경씨 딸 윤지영양=광주파로연-20일(토) 낮 12시 프라다호텔 3층, 결혼식-27일(토) 오후 3시 서울 마리아쥬스퀘어 3층.

알림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

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비에 한함) 062-365-8228.

▲비틀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애틀봉사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지원센터 062-351-3029.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광주중환자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제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학교근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연 상담 062-351-1206.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

한 헌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회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근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로,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즐

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호시향넷 봉사단=뜸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전문문화 보전 연구회원=한문·예

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동 2차 맞은편 062-268-5588, 010-9940-2512.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림=북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노래교실(화·수·오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타구교실(수·오 2시), 자율타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 4시) 062-410-5000.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문해교육(한글과장),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놀이패 ‘신명’ 단원=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박매임 님 (여/87세) 子/子婦: 이정원/최진희, 이영/전옥경 女/婿: 이진숙, 은숙/김경식, 계숙/김진수, 지숙/남진섭 ●발 인: 6월 19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1	301호 故오이순 님 (여/82세) 子/子婦: 정동욱/최미자, 광태/김명순 女/婿: 정선자, 선옥/전광문, 선순/심재경 孫: 정상정, 소이, 민희, 주희 ●발 인: 6월 19일 ●장 지: 화순 복면선영 ●연락처: 227-4382
401호 故정찬덕 님 (여/82세) 子/子婦: 문옥진/정년희, 봉진/김미애 女/婿: 문남순/박경걸, 현순/하산준, 연숙/유진용 ●발 인: 6월 20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3	402호 故김윤주 님 (여/34세) 兄弟: 김종민, 선화, 박봉철 ●발 인: 6월 19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101호 故정수호 님 (남/77세) 子/子婦: 정진수/김이현, 민수/조영란 女/婿: 정기자/이수환 ●발 인: 6월 19일 ●장 지: 화순 흥택선영 ●연락처: 227-4385	102호 故김진호 님 (남/72세) 子/子婦: 김택신/이상화, 덕순/한호성 女: 김영숙 ●발 인: 6월 20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孝 金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	

부음

▲백덕임씨 별세 이철재(전 광주일보 논설위원)씨 빙모상=발인 20일(토) 광주 천지장례식장 301호 062-670-0030.